

‘월드 말쑹꾼’ 존 델리 도박 반성 자서전



월드의 말쑹꾼 존 델리(미국)가 도박에 빠졌던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는 자서전을 펴냈다.

델리는 2일 출간된 자서전(My life In and Out of the Rough)에서 지난 12년간 도박에 빠져 5천만~6천만 달러를 날려 버렸으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라고 썼다고 밝혔다.

델리는 지난 가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에서 75만 달러를 벌었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고 라스베이거스에 들러 5천달러짜리 슬롯머신 앞에서 5시간만에 165만 달러를 잃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후원계약 수입과 대회 출전비를 도박빚을 갚는데 썼다고 실토했다.

1991년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대기선수로 출전, 우승컵을 거머쥐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델리는 음주난동 등 각종 기행을 저질러 선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델리는 자서전에서 “이제는 (테네시우스키인) 잭 대니얼스도 끊었고 호텔 방에서 난동도 부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도박뿐”이라며 술은 끊었지만 도박 중독은 아직 치유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델리는 “앞으로는 25달러짜리 슬롯머신에서 시작하고 한도를 정해 놓고 할 것”이라면서 “(도박장의) 돈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골프를 치면 배를 벌지 않겠느냐”며 골프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차인표 아동복지 공로 대통령 표창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탤런트 차인표가 어린이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차인표는 아동보호 및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예정인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여받게 된다.

차인표는 2002년 5월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교육 비디오에 무료로 출연했다. 또 부인 신애라와 함께 국내 결식아동과 북한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펼쳐왔다.

브루스 윌리스 ‘너구리 목소리’ 도전



액션 스타의 대명사 브루스 윌리스(사진 위)와 캐나다 출신 미녀 록가수 에이브릴 라빈(21·아래)이 목소리 연기에 도전했다.

이들은 드림웍스의 새 애니메이션 ‘헛지(Over the Hedge)’에서 더빙에 참가, 브루스 윌리스는 배고픈 때풀이 너구리 알제이(RJ)역할을, 에이브릴 라빈은 주머니쥐 헤더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입혔다.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리젠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웃기는 일이 가장 힘들면서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2집 앨범 ‘언더 마이 스킨(Under My Skin)’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에이브릴 라빈(21)은 “주머니쥐가 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지명 연구 권위자 유재영 원광대 명예교수, 문고 2만권 전남대 기증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책 물려주고 싶을 뿐”

지명 연구 권위자로 알려진 춘강(春岡) 유재영(73) 원광대 명예교수가 50여년간 수집한 한국학 분야 개인 문고 2만여권을 최근 전남대 호남한문학연구실에 기증했다. 연구자가 은퇴에 맞춰 모교나 제자에게 장서를 기증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학문발전만을 위해 직접적인 연구가 없는 후학에게 방대한 장서를 기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춘강문고’라 이름 붙여진 장서에는 한문학을 비롯해 문헌학, 인문학 등의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가 망라돼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문고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문고 가운데 유 교수가 수십 년 동안 호남 곳곳을 다니며 복사한 수 천 권의 문집에는 희귀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책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호남한문학연구실을 훌륭한 연구소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한문학연구실 김대현(국어국문학과) 교

수는 “지명연구의 권위자이자 문헌학자인 유 교수가 기증한 책들을 대학 인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 호남학·인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실로 발전시켜 그의 뜻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유 교수는 원광대와 전북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58년부터 원광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한국언어문화회 회장을 역임하고 ‘백운(白雲)소설연구’, ‘전래지명의 연구’, ‘춘강수록(春岡隨錄)’, ‘전북전래 지명총람’ 등 저서를 출간했다.



美 최초 여성 우주왕복선 선장 콜린스 NASA 떠나

“젊은이들에게 비행 기회 줘야”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왕복선 조종사와 우주왕복선 선장 경력을 갖고 있는 에일린 콜린스(49)가 미항공우주국(NASA)을 떠난다.

네차레나 우주 왕복 비행을 한 콜린스는 “이 곳에 아직 한번도 우주 비행을 해보지 못한 많은 우주인들이 있으며 이제는 옆으로 물러서 젊은 사람들에게 비행 기회를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콜린스는 지난해 2003년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후 처음으로 재개된 우주왕복선 비행에서 돌아온 후 사임을 고려해왔다.

콜린스는 “그동안 가정에서 떠나 있었던 만큼 올 여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멋진 여름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콜린스는 전직 공군 조종사로 지금은 델타항공 조종사인 패트 영스와 사이에 딸(10)과 아들(5)을 두고있다. 1990년 NASA의 우주조종사로 발



탁된 콜린스는 1995년 여성 최초의 우주왕복선 비행사로 디스커버리호 비행에 참가했으며 1999년 컬럼비아호 비행에서 여성 최초의 우주왕복선 선장이 됐다. 콜린스는 872시간의 우주 비행 기록을 갖고 있으며 1999년 컬럼비아호 비행 후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슈퍼스타로 국민적 인기를 모았다.

“친부모님 보고 싶어요”

美 입양아 리아 브르어씨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친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2일 전남대병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리아 브르어(여·31)씨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입양된 지 27년. 그가 한국을 떠난 것은 4살 때다. 그런 그에게 한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한다. “당시 두살때인 부산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영란’이란 한국 이름과 1975년 6월5일이라 적힌 생일 날짜가 적힌 카드,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교사인 아버



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8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따뜻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입양아라는 불안한 그의 위치는 그를 한때 방향 속으로 몰아 넣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서 “이제 친부모를 만나면 남들에 대한 치료가 아닌, 제 안 깊숙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과정일 것”이라고 웃었다.

희귀병 이기고 전교회장 된 이재성군

초등학생이 자신의 희귀병을 이겨내고 전교 학생회장이라는 목표를 이뤄냈다. 서울 화곡초등학교 학생회장인 이재성(13·6년)군은 어릴 때부터 류코다당증이란 희귀병을 앓아 왔다. 류코다당증이란 체내에 당분이 축적돼 호흡기와 심혈관계, 관절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병으로, 이 군은 관절이 잘 성장하지 않아 같은 학년 친구들에 비해 키가 10cm이상 작고 상대적으로 머리가 컸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놀리며 쳐다보는 것은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전염병 환자보듯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이군은 커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군은 학교 공부도 결코 소



홀히 하지 않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2학년때부터는 자신의 장애를 딛고 전교 회장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갔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은 서서히 이군을 자신들의 친구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3월 마침내 자신이 꿈꿔왔던 전교 학생회장에 당당히 당선됐다. 이군은 커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최정호 前 연세대 교수 ‘獨 심자공로훈장’ 수상



최정호 전 연세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독일 정부로부터 한·독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심자공로훈장’을 받게 됐다

최 전 교수는 언론인으로서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은 물론, 1989년 장벽 붕괴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한국인들에게 알렸으며 수많은 기고문과 글을 통해 독일 문화와 정신사를 알리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동국대100주년 광고 출연 안해”

김수환 추기경



동국대가 개교 100주년 기념 신문광고에 가톨릭 수장인 김수환(84) 추기경이 출연한다고 2일 발표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광고 출연 제안인 줄 몰랐다”며 고사해 발표내용을 번복했다. 동국대는 이날 “개교 100주년을 알리는 3일자 신문광고에 김 추기경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며 “이는 불교계 학교의 생일에 타종교 지도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다면 의미가 깊겠다고 생각한 흥기삼 총장의 요청을 김 추기경이 흔쾌히 승낙하면서 성사된 이례적인 일”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수환 추기경이 신문광고에 출연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김 추기경은 광고가 아니라 축전을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추기경은 광고에 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제1회 임창순 학술상 역사학자 이이화 교수



‘한국사 이야기’(전 22권) 등을 저술한 역사학자 이이화(69) 서원대 석좌교수가 청명문화재단(이사장 성대경)이 제정한 제1회 임창순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태동고전연구소를 설립한 한학자 청명 임창순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종로구 종학동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내방

▲박종영씨(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김천심씨 막내 이광희군 김성민씨 장녀 효정양=5일(금) 낮 12시 30분 KBC컨벤션웨딩홀 3층.
▲박광해(인터넷 전남뉴스 발행인)씨 차남 진주(세계일보 기자)군 손병환(임대업)씨 장녀 옥희(약사)양=6일(토)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에블루션웨딩컨벤션 3층. 피로연 2일(화) 오전 11시~오후3시 해남읍 남도서관.
▲이을희(광주환경시설공단 폐기물관리사업소장)씨 장남 재운군 신기삼씨 장녀 숙현양=6일(토) 오후 1시 계림동 동성교회 분당.
▲이재술씨 3남 경주군 정찬봉씨 장녀 인숙양=6일(토) 낮 12시4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황윤연씨 장남 인수군 박희영

- 씨 막내 은영양=7일(일) 오전 11시 50분 웨딩홀 화이트하우스 1층 그랜드실.
▲임병갑씨 장남 동환군 김중덕씨 장녀 진희양=7일(일) 오전 11시 2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박문례씨 4남 이박영군 양복례씨 막내 박귀옥양=7일(일) 낮 12시 4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김희용씨 막내 현(조은실사)군 김봉운씨 처녀 현정(조은실사)양=7일(일) 오후 1시2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이기복씨 막내 성운군 임영택씨 장녀 옥영양=7일(일) 오후 2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동창·동문회

- ▲삼도초교 총동문회=4일(목) 오전 11시 모교 교정. 011-602-6875
▲장흥초교 59회 제 1회 동창의 날=5일(금) 오전 11시 장흥실내체육관.
▲광주인성고 가족한마당=14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018-646-9444
중진회
▲전주리씨 효령대군파 교관공침지공 중진회(회장 이기춘) 제 13회 정기총회=4일(목) 오전 10시 광양시 대동중앙원 광주전남도지원 광양분원 사무실. 011-647-7845
▲연암씨 광주 중진회(회장 김남철) 월례회=5일(금) 오후 6시30분 구 동구청 뒤 명덕회관. 222-0532
알림

-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광주월광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제 1기 예비 엄마학교 참여자 모집=5월 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50명. 회비 4만원(부부 6만원). 문의 011-9431-1549 010-5627-0009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주부 취업 훈련생 모집=취업을 희망하는 고졸 이상 20~40대 주부로, 교육 과목은 컴퓨터 실무. 5월 12일까지 접수. 교육 기간은 5월23일~8월3일. 교육비는 본인 부담 4만원. 266-850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연극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으로 연극연기(배우)·기획·연출 등 모집. 430-5257 010-7205-0517

- 생 모집=모집 기간은 5월 11일까지. 대학 장학금은 4년제 대학 1·2학년 재학생, 전문대 장학생은 2년제 대학 1·2학년생 대상으로 모집. 접수는 해군 홈페이지 모병센터(www.navy.mil.kr) 230-4247
▲광주월광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제 1기 예비 엄마학교 참여자 모집=5월 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50명. 회비 4만원(부부 6만원). 문의 011-9431-1549 010-5627-0009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주부 취업 훈련생 모집=취업을 희망하는 고졸 이상 20~40대 주부로, 교육 과목은 컴퓨터 실무. 5월 12일까지 접수. 교육 기간은 5월23일~8월3일. 교육비는 본인 부담 4만원. 266-850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연극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으로 연극연기(배우)·기획·연출 등 모집. 430-5257 010-7205-0517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 고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 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달리다꿈선교단 단원모집=드림·기타·베이스·키보드 배워 봉사 하실분, 교회·병원·군부대·교도사·고아원 위문공연=941-8591, 011-648-0806
▲100원회 회원모집=1일 100원

- 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십시오 011-666-0660
부음
▲김용기(요셉)씨 별세 원종·정중·현자·현영·현주씨 부친상 여류동·이희희·이재동씨 빙부상=발인 3일(수)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이서정씨 별세 유두중씨 모친상=발인 3일(수)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383
▲박춘규씨 별세 원영·윤정·봉선·하정씨 부친상 이강한·심원재·나만주씨 빙부상=발인 3일(수)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길모 특별분양
TEL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신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 515-4488